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사는 게 답답하고 제 운명이 마치 갑옷을 두른 것처럼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다. 가족 부양의 의무를 짊어진 가장이라는 짐을 싣고 사막을 가로지르는 낙타 같다...

전직 '뉴욕' 기자이던 패트릭 브링리의 '나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경비원입니다'는 심장을 두드리는 책이다. 제 결혼식이 열리기로 한 날, 형의 장례식이 치러지는데, 그날이 그의 운명의 변곡점이었다.

종교칼럼



황성호 신부광주기독교사회복지회 부국장

잘난체하고 목이 뻗뻗한 이들에게서 우리는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사악하며 폭력적인 모습을 발견한다. 함께 살기보다 타인을 짓밟고 착취하기 때문이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무엇이 갖추어져야 완벽한 존재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정말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일까? 예수는 사랑의 계명을 하느님 아버지의 모범과 연결하여 마태오 복음 5장 48절의 말씀인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선포하신다.

기고



강현미 광주문화재단 예술상상본부장

예술이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흔히 화려하고 압도적인 풍경을 떠올리지만, 많은 이들의 내면 깊은 마음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예술이 도시를 변화시킨다고 하면 흔히 화려하고 압도적인 풍경을 떠올리지만, 많은 이들의 내면 깊은 마음의 풍경을 변화시키는 것에도 큰 의미를 두고 싶다. 새로운 눈으로 나와 주위를 발견하고 더 나은 우리로 함께 성장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가 사는 도시는 더 성숙하고 예술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자기 혁명을 한다는 것

다. 미술관 경비원이란 머리를 쓰지 않아도 되었다. 그에게 새로운 일다는 심리 치유에 최적화된 공간이다. 그곳은 속세와 단절된 고요한 피안이었던 곳이었다.

사람들은 어떤 계기에 삶의 방식을 바꾸곤 한다. 새 직업을 찾는 시도는 가치의 위계와 자기 시간을 쓰는 방식을 바꾸기 위한 시도다. 기업이나 정치가도 변화와 혁신을 외친다. 한 기업 총수가 한 "자식과 마누라를 빼고는 다 바꿔라!"라는 말이 인구에 회자된 적이 있었다.

자기에게 충실한 삶을 산다는 것, 그런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다움이 아닌 것의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뿔가에서 벗어나는 것의 최종심급은 혁명이다. 김수영은 '푸른 하늘들'에서 "혁명은 왜 고독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노래한다. 혁명은 고독하고 피(자기희생)가 요구되는 일임을 깨...

운명적 결함과 완성

서 사랑을 완성해 가라는 의미이다. 하느님의 아들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하느님은 말씀과 실행으로 완전함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완성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인 우리는 타인과의 삶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비추보기도 한다. 타인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이 되는 것처럼, 사회 안에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그 부족함을 채워나가기도 한다. 때론 자신도 모르게 자기 삶의 모습이 타인의 부족함을 채워주기도 한다.

'하마르티아'라는 그리스어는 '빛나기'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성경에서 '하마르티아'는 원죄를 말하는 데, 더러움을 의미하며 하느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룩한 것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자기 자신에게 어떤 결함이나 부족함이 있다면 누구도 모르게 결함을 감추거나 부족함을 채우려고 한다.

예술이 도시를 바꿀 수 있을까

래 예술가, 기획자, 교사, 디자이너, 농부, 건축가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여러 차례 워크숍을 가졌고 '사람 아닌 생명체들에게 광주는 어떤 도시일까', '우리 각자에게 걸음은 어떤 의미일까', '도시에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기후위기에 예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등 예술가의 시선에서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가는 랩들이 구성되었다.

'다른 생명체의 시선으로 도시보기' 팀은 가로수, 길고양이, 물고기, 새들의 눈으로 광주를 다시 살펴 보았고, 이 활동은 광주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명체들을 직접 그리고 소개한 '시시각각(市視各覺) 카드놀이 키트'로 발전했다. '요리와 이야기' 팀은 도심 한복판에 눈을 만들고 모내기과 추수, 수확한 쌀로 함께 요리를 해 먹는 과정을 함께하면서 마을이나 생태공동체 프로그램으로 확대 가능성을 찾았다.

생태, 농사와 요리, 걷기 등과 관련한 다채로운 예술 실험이 기존의 틀을 깨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으로 확장되어 가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설레고 흥미로웠다. 약기나 그림, 공연·전시를 가르치고 배우는 방식을 떠나 '다른' 시선과 감각으로 새로운 나를 자각하고 표현하는 상호작용 자체가 훌륭한 문화예술교육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실감하는 시간들이었다.

넘치고 살기에는 너무나 죽어 있기(한병철, '오늘날 혁명은 왜 어려운가') 때문에 생긴다.

새로운 일을 찾아 떠나는 이직은 자기 혁명의 한 방식이다. 뉴욕 한복판 엔지니어 스테이트 빌딩이 건너다보이는 사무실에서 커리어를 쌓던 한 젊은이가 뜻밖의 비극을 맞고 무기력에 빠진다. 그는 시간에 쫓기며 자기를 갈아 넣는 기자직을 버리고 경비원으로 전직하며 내면을 관조하는 고요함과 평화를 얻는다.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주체를 해체한 뒤 그걸 프로젝트로 대체한다. 그 과정에서 운명이란 것도 증발해버린다. 자기 스스로 고충유자자 피고용자로 만드는 시대에는 자기에게 성과를 내라고 채찍질을 해댄다. 그들은 직장에 예측된 채로 업무를 반복하면서 자기 착취를 하는 것이다. 일에 매여 진저리를 치거나 한숨이나 내뿜고 산다면 이보다 더 딱한 처지는 없다.

스쿨존 주정차 금지 2년... 불법주차 여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지 2년이 지났지만 불법 주·정차는 여전히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 5개 지자체에 따르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으로 올해 1월에만 5개 지자체에서 총 2276건이 적발됐다. 1월에 부과된 과태료만 2억 7000만 원이 넘는다. 2년 동안 각 지자체별로 보면 동구 8480건, 서구 1만502건, 남구 5427건, 북구 1만8113건, 광산구 3만7724건에 달한다.

광주일보 취재팀이 스쿨존 불법 주정차 금지 시행 2년을 앞두고 옛그제 현장점검에 나선 결과, 광주지역 12개 스쿨존에 차량들이 빼곡하게 주차돼 있었다. 광주 북구 오치동 오치초등학교 앞 120여m 스쿨존 왕복 2차로 도로 양 옆에는 바닥에 적힌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문구가 무색하게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았다.

社說

현역 물갈이 여론조사... '찍어내기' 의도 없기를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을 앞두고 일부 지역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재지지 여부와 교체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를 하고 있다.

질문의 주요 내용은 지지 정당과 이번 총선에서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과 함께 "이 지역 ○○○ 국회의원을 계속 지지하겠습니까" 혹은 "○○○ 국회의원이 한번 더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등 사실상 현역 의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묻고 있다.

無等鼓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는 '1'과 '3'이다. '1'은 모든 사물이나 행위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이고, '3'은 일상의 진행 과정이나 시스템에서 가장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숫자는 '1'과 '3'이다. '1'은 모든 사물이나 행위에서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이고, '3'은 일상의 진행 과정이나 시스템에서 가장 안정적인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는 숫자이기 때문이다. 특히 숫자 '3'은 살면서 가장 자주 접하는 탓에 사람의 의식에 각인된 상징 체계와도 같다.

'3'의 의미

불이 모셔져 있는데, 중앙의 부처님 좌우에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이 자리하는 형태이다. 단군신화에서 환인이 하늘을 상징하고, 환웅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로, 단군이 땅을 의미하는 인물로 나타나는데도 같은 예이다.

새로 태어난 아이에 대한 무속신앙이나 신화에도 숫자 '3'은 적용된다. 한국 무속신앙에서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려면 출산을 관장하는 삼신(三神) 할머니의 점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믿었다. 삼신은 세 명의 여신으로 아이의 출산과 운명을 관장한다고 여겨졌다.

Table with 4 columns: Position, Name, and contact info. Includes details for the newspaper's editorial board and subscription information.